

손흥민 “마스크 쓰고라도 월드컵 뛰겠다”

SNS 통해 수술 후 처음 근황 전해 “단 1%의 가능성 있다면 달려가겠다”

안과질환으로 수술을 받은 한국 축구 대표팀의 '캡틴' 손흥민(30·토트넘)이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뛰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손흥민은 9일(이하 한국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술 후 처음으로 근황을 전했다.

그는 대표팀 유니폼을 입은 자신의 사진과 함께 “지난 한 주 동안 받은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많은 분께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받았고, 읽으며 많은 힘을 얻었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월드컵에서 우리나라를 위해 뛰는 것은 많은 아이가 축구 선수로 성장하면서 꿈꾸는 일일 것이다. 저 또한 그 꿈을 지금까지 변함없이 가지고 있다”고 했다.

손흥민은 얼굴 보호대를 쓰고서라도 직접 월드컵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지난 2년여의 시간 동안 여러분이 참고 견디며 써오신 마스크를 생각하면, 월드컵 경기에서 쓰게 될 저의 마스크는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며 “단 1%의 가능성만 있다면, 그 가능성을 보며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앞만 보고 달려가겠다”고 덧붙였다.

손흥민이 월드컵에 나서겠다고 결심한 배경에는 팬들의 사랑에 보답해야 한다는 책임 의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으로 국민이 받은 고통에 비하면, 자신이 당한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손흥민의 얘기다.

또 월드컵까지 완전한 몸 상태를 만들지 못하더라도 그동안 자

신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준 팬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대표팀에 헌신하겠다는 의지도 메시지에 담겨있다.

손흥민은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스포츠 스타 중 하나다. 토트넘에서 받는 연봉에 광고 수입 등을 더하면 1년에 200억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의료 브랜드도 론칭했다.

자신의 피나는 노력뿐 아니라 팬들의 깊은 사랑도 이런 어마어마한 성공의 토대라는 점을 손흥민은 잘 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5년 연속으로 ‘한국을 빛낸 올해의 스포츠 선수’로 선정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누려온 손흥민은, 이에 늘 보답하고자 했다.

특급 스타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국가대표팀 A매치에서는 다소 힘을 빼고 임하는 것은 드물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손흥민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유럽에서 한국까지 먼 길을 달려와 대표팀의 붉은 유니폼을 입으면, 외려 팬들이 그의 부상을 걱정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 뛰었다.

벤투 감독은 전날 손흥민이 SNS를 통해 안면 보호 마스크를 끼고라도 월드컵 무대에 서겠다는 뜻을 밝힌 점에 대해서는 “손흥민은 늘 그랬다. 예전에도 부상을 무릅쓰고 경기에 출전하려고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 “손흥민이 최대한 빠르게 회복할 수 있게 돕겠다. 손흥민은 당연히 최종 엔트리에 선발할 것이다. 매일 잘 체크해 가면서(출전과 관련해) 최선의 선택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손흥민은 지난 2일 올랭피크 마르세유(프랑스)와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조별리그 D조 최종전에서 상대 선수의 어깨에 얼굴을 강하게 부딪혀 29분 교체아웃됐다. 이후 왼쪽 눈 주위 네 군데가 골절된 것으로 드러나 4일 수술대에 올랐고, 현재 회복 중이다. /연합뉴스



한국 축구 대표팀의 '캡틴' 손흥민은 9일(한국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술 후 처음으로 근황을 전했다.

(손흥민 인스타그램 캡처)



KIA 타이거즈 제주도 마무리 캠프에서 1군 무대를 노리고 있는 포수 김선우(왼쪽부터), 신명승, 신범수와 김상훈 배터리 코치.

포수 신범수·김선우·신명승 1군 무대 진입 노린다

KIA, 제주도 마무리 캠프 “선배들 긴장하게 만들겠다”

“선배들 긴장하게 만들겠습니다.”

KIA 타이거즈의 ‘안방’은 변동 많은, 아쉬움 가득한 자리다. 올 시즌에도 변화가 많았다. 김민식이 트레이드로 다시 친정팀으로 돌아왔고, 소문 많던 박동원이 시즌 중반 트레이드를 통해 KIA 유니폼을 입었다.

본격적인 스토브리그가 시작된 현재, 포수는 역시 KIA에서 가장 뜨거운 자리다. FA 영입, 트레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포수 전력 강화를 고민하고 있고, 제주도에서는 신예 선수들이 이를 악물고 1군 무대를 노리고 있다.

KIA의 마무리캠프에는 신범수(24), 김선우(21), 신명승(20)이 포수조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내년이면 프로 8년 차가 되는 신범수는 이번 캠프 최고참이자 ‘주장’이기도 하다.

올 시즌 기회를 얻지 못했던 신범수는 시즌 막판 1군에 합류해 두 경기에 나왔고, 와일드카드 결정전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다. 아쉬움 많은 시즌이었지만 잊지 못할 가을을 보내면서 캠프에 임하는 각오가 다르다.

신범수는 “아구 하면서 한 번도 못갈 수 있는 포수 시즌인데 경험을 하게 돼서 감사하다. 9월에

1군에 못 올라가면서 내년 열심히 준비해야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경기 별 기회를 주셔서 동기 부여가 됐다”며 “내년에는 진짜 잡아야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다. 선우도 명승도 다들 잘하고 있다. 1군에 있는 형들 긴장시킬 수 있게 해야한다. 이제는 그해야 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역시 ‘수비’다. 신범수는 “여기서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수비다. 수비가 많이 늘었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1군 기회를 주실 것이다”며 “안정감 있게 해야 한다. 2군에서 안정감 있게 해보려고 노력 많이 했다. 2군 투수 공도 많이 받아냈다. 어찌 됐든 1군에서 잘해야 하나기 편하게 보일 수 있도록 수비 신경쓰겠다”고 언급했다.

김선우에게 2022시즌은 잊을 수 없는 시즌이다. 많은 경기에 나서지는 못했지만, 프로 2년 차인 올 시즌 1군 무대를 경험했다. 9월 1일 처음 엔트리에 등록돼 한 달 넘게 1군 무대를 경험했고, 경기에 나와 4타석을 소화하면서 데뷔 안타도 기록했다.

김선우는 “1군 경험을 하면서 더 열심히 훈련하고 있다. 좋은 경험이었다. 처음 안타쳤을 때도 열 떨렸었다. 나가보니 1루였고, 돌아보니 홈에 들어왔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고, 그래서 여기 와서 더 열심히 하게 된다”며 “시합 나가서 아쉬움도 있었고, 부족함도 느껴져 더 열심히 하고 있다. 1군에서 볼받으니까 확실히 2군 불하고 달랐다. 포수는

수비가 돼야 1군에 있을 수 있으니까 수비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1군 경험을 바탕으로 강한 어깨와 타격으로 어필할 생각이다.

김선우는 “동원 선배가 수비적인 부분, 멘탈, 투수 리드하는 것 등 많이 알려줘 생각하는 게 많이 달라졌다. 그 생각대로 하려고 하고 있다”며 “정확성이 부족하지만 어깨가 강하다. 정확성 좋아진다 면 볼 빼는 것도 자신 있고 도루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타격도 자신 있어서 열심히 하면서 어필하겠다”고 각오를 언급했다.

진흥고 출신의 ‘루키’ 신명승에게는 모든 게 새롭고, 신기한 시즌이었다. 이번 캠프에는 2023 신인 선수들도 참여하면서 선배 역할도 하고 있다.

신명승은 “캠프가 재미있고, 힘들다. 1군 코치님들하고 같이 운동하는 게 재미있는데, 러닝 등이 힘들다. 처음에는 캠프에서 긴장했는데, 그 긴장이 러닝이나 웨이트가 힘들어서 다 잊게 된다. 합명에서 훈련하는 것처럼 편하고 힘들다”고 웃었다.

또 “올 시즌 ‘프로는 프로’라는 걸 느꼈다. 야마 추어하고 확실히 달랐다. 생활, 운동, 환경 부문 등이 좋다. 시합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다. 열심히 하고, 부상 없이 캠프 잘 마무리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나성범·박찬호 2022시즌 MVP 후보

김도영 신인상 후보에 올라

2022시즌 최고의 선수들을 만나는 KBO 시상식이 17일 오후 2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다.

시상식에서는 2022 KBO 정규시즌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친 MVP와 신인상 주인공이 발표된다. KBO 리그와 퓨처스리그 개인 부문별 1위 선수, 우수심판원에 대한 시상도 이뤄진다.

MVP 후보로는 KIA 나성범·박찬호와 함께 KT 임상백·박병호, 삼성 피렐라, LG 고우석·정우영·켈리·플러거·김현수, 키움 안우진, 이정후, SSG 김광현·최정·최지훈, 롯데 이대호 등 16명이 이름을 올렸다.

신인상 후보에는 KBO 표창규정 제7조에 의거해 기준을 충족하는 선수 중 KIA 김도영을 비롯해 KT 박영현, 두산 정철환·최승용, 삼성 김현준·이현, SSG 전의산, NC 김시훈·오영수, 롯데 황성빈, 한화 윤산흠·김인환 등 12명이 선정됐다.

투표는 한국야구기자회 소속 언론사와 지역 언론사 소속 기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기존 점수제에서 다득표제로 MVP와 신인상 주인공이 결정된다.

개인 부문별 시상식에는 KIA 박찬호와 김기훈이 단상에 오른다.

박찬호는 올 시즌 42개의 도루를 기록하면서 지난 2019년에 이어 두 번째 ‘도루왕’에 등극했다.

지난 9월 군복무를 마치고 팀에 합류한 김기훈은 퓨처스리그 남부리그 평균자책점 1위(2.95)로 시상대에 오른다.

상무에서 복무 중인 외야수 최원준도 퓨처스리그 남부리그 타율 1위(0.382)로 시상식장을 찾는다.

한편 KBO 리그 부문별 1위 선수 및 우수 심판 위원에게는 트로피와 상금 300만원이 수여된다. 퓨처스리그 부문별 1위 선수는 트로피와 상금 100만원을 받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투수 한승혁·장지수 내주고 내야수 변우혁 영입

한화와 2대 1 트레이드

KIA 타이거즈가 한화 이글스와 2대 1 트레이드를 단행했다. 투수 한승혁(29)과 장지수(22)를 내주고 내야수 변우혁(22)을 영입했다.

천안북일고 출신인 변우혁은 지난 2019년 한화의 1차 지명 받고 프로에 입단, 프로 통산 2시즌 동안 50경기에 나와 28안타(4홈런) 타율 0.246, 10타점 12득점, OPS 0.681을 기록했다.

‘우타 거포’가 고인인 KIA 입장에서 장타력을 갖춘 ‘군필’ 변우혁이 매력적인 카드가 됐다. 또 1·3루 모두 가능한 코너 내야수로 활용도가 높다는 평가다.

KIA는 지난 5월에는 포수 김민식을 SSG 랜더스에 내주고 좌완 김정민과 우타 거포인 내야수 임석진을 영입하기도 했다.



변우혁

한편 KIA가 한화에 내준 한승혁은 지난 2011년 KIA의 1차 지명 선수로 프로에 입단했다.

150km가 넘는 강속구를 뿌리면서 눈길을 끌었지만 제구에서 아쉬움을 남기면서 프로 통산 9시즌 동안 228경기에 나와 5.84의 평균자책점으로 18승 24패 2

세이브 19홀드를 기록했다.

지난 2019년 2라운드 지명 선수로 KIA에 입단한 장지수는 상무에서 복무를 마치고, 프로 통산 3시즌 동안 23경기에 나와 승패 없이 평균자책점 5.23을 기록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타이거 우즈 컴백 ... 12월 히어로 월드 챌린지 출전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47·미국)가 12월 바하마에서 열리는 히어로 월드 챌린지에 출전한다.

우즈는 10일(한국시간)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12월 1일부터 나흘간 바하마의 올버니 골프 클럽에서 열리는 히어로 월드 챌린지에 나간다”고 발표했다.

이 대회는 타이거 우즈 재단이 주최하며, 세계 정상급 선수 20명이 출전해 나흘간 72홀 스트로크 플레이로 우승자를 정한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정규 대회는 아니지만 세계 랭킹 포인트가 걸려 있다.

우즈의 대회 출전은 7월 메이저 대회 디오피 이

후 약 5개월 만이다.

올해 히어로 월드 챌린지에 나설 20명 가운데 17명은 이미 확정됐고, 세 자리가 남았는데 우즈는 이날 “올해 히어로 월드 챌린지에 나가게 돼 기쁘다”며 “나와 케빈 키스너(미국), 토미 플리트우드(잉글랜드)가 출전하게 됐다”고 밝혔다.

우즈는 지난해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운전하던 차가 전복하는 사고로 다리를 심하게 다쳤다.

이후 2021년에는 대회에 나서지 못했고, 올해는 마스터스와 PGA 챔피언십, 디오피 등 메이저 대회에만 모습을 보였다. /연합뉴스